

편집장레터

작전명 청-춘!



장재민 편집장

“어른이 된 오늘 내게 세상이란 곳. 어릴 적 그리던 꿈속 전쟁터구나.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영웅이 되려. 선포한다 작전명 청춘” - 잔나비 [작전명 - 청춘] 中 한구절

저녁밥을 먹고 집에서 쉬던 중, 부산에 계시는 할머니의 전화 한 통이 왔다. 평소와 같이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귀에 따지가 앓을 만큼 들었던 잔소리를 어김없이 듣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문득 과거 할머니의 청춘이 궁금해서 잔소리로 그만 들을 껴 물어봤다. “할머니는 청춘이 뭐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혈기 왕성하고, 겁나는 거 없고, 자유로운 거. 그게 청춘이지”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어릴 적,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였다고 한다. ‘울챙이 부대(동네 어른들이 아이들 무리에게 붙여준 별명)’의 일원이었던 할머니는 다른 동네로 원정을 가, 감나무의 감도 훔쳐 먹고 수박 서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10대 때는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친구들과 10리를 걸어가기도 했고, 명절에 노래자랑에 나가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놀기도 했다. 부모님 몰래 쌀을 훔쳐서 구멍가게 아저씨에게 가 술을 몰래 사 먹기도 했으며 추억을 회상했다. 당시 할머니께서 몰래 드셨던

술은 ‘무학’ 기업의 소주. 제품명은 ‘청춘’이다.

이번 호의 주제는 ‘청춘’입니다. 청춘이라는 단어는 젊음, 도전정신, 사랑 등을 떠올리게 하죠. 힘든 상황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게 청춘이지?’ 한마디면 가슴속에 있는 작은 열정의 불씨를 다시금 지킵니다. 저는 청춘을 성장기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른이 되는 걸 꿈꿔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의 몸이 되어 온몸으로 청춘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지금, 저는 저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내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무력한 채 청춘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제가 한심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좌절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좌절을 겪었나요. 원하는 성적이나 기록이 안 나올 때? 믿었던 이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 공들였던 일들이 무너졌을 때? 만일 제 질문을 듣고 떠올린 그 순간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청춘일 것입니다. 과거의 좌절했던 순간을 딛고 일어선 현재의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증명하고 걸 테니까요. 마치 성장통을 겪고 키가 자라는 성장기처럼요.

이번 호에서는 일상에서 청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3년 만에 교내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운동장

가운데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동기와 이야기하는 모습. 소리 지르면서 무대 공연을 즐기는 모습. 서로 찍어준 사진을 보며 깔깔 웃는 모습 등 청춘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었던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우리의 서민 의식을 보여주는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생생한 축제의 현장을 1면에서 느껴보세요.

지난달, 자신의 청춘을 바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간 이들에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노동자 처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메가스포츠이벤트 현장에서 다 빠지지 않는 노동자 관련 이슈. 더 이상 이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참변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5면에서 문제의 실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축제와 함께 개최되었던 제8회 학보사 사진전은 재밌었나요? 청춘을 주제로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었고, 그중 청춘을 가장 잘 표현한 네 작품이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명의 수상자들이 생각하는 청춘과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를 10면에 담아봤습니다.

청춘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는 기승전결이 비슷합니다. 주인공이 아픔을 겪고 극복해 성장하는 이야기. 뻔한 스토리지만 그만큼 확실한 흥행 보증수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또한 성장을 이끄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쓰러지지 말고,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청춘이 여러분의 인생 영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생각

활기로 넘쳤던 이틀, 천마 축제



김유민
노인체육복지학과
22학번

내가 생각하는 대학생활의 꽃은 단연 축제라고 생각한다. 3년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역대급 축제 스케일과 연예인 라인업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축제 첫째 날이 밝았다. 대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만으로도 벌써 설레었다. 본격적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학과 공연이 시작됐다. 각 학과마다 개성 넘치는 무대와 기대를 뛰어넘는 퀄리티의 퍼포먼스에 연습한 고성의 시간들이 느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체육학과 레슬링 선수들의 무대였다. 레슬링복을 이용해 노래에 맞춰 춤을 췄는데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절대 잊지 못할 강렬한 무대였다. 그 다음 차례로 tv프로그램 복면가왕을 기반으로 기획된 ‘Voice 한체’ 순서가 이어졌다. 나도 복면 ‘붉은 눈 마녀’로 참가했다.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내 지원했고 결국 무대까지 설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노래를 부르는 것인 만큼 나름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다. 무대

직전 대기 시간에 여자 참가자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웬지 모를 부담감에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고 노래를 불렀다.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실수도 있었고 완벽히 만족스러운 무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 자체로 나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뿌듯함과 후련한 마음이 가장 크게 들었다. 그렇게 무대를 마치고 마지막 연예인 공연 순서가 찾아왔다. 우리 학교를 찾아온 연예인들은 정말 무대를 갖고 노는 듯 너무 멋있었다. 또, 한체대 학생들과 함께 뛰어놀며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공연이 끝나고도 여운을 가지지 않았다.

축제 둘째 날, 나에게 가장 기대되는 응원대제전이 있는 날이다. 3년만에 열리는 제전인 만큼 응원단원들 모두 몸과 영혼을 갈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응원대제전이 막을 올렸다. 깃발무대를 시작으로 나를 포함한 신입단원들의 무대와 고문단원들까지 함께 무대를 꾸몄고 학교 응원가에 맞춰서 학우들과 하나되어 함께 최강 한국체대를 외치며 무대를 즐겼다. 그때 마치 온몸에 전율이 흘렀던 것 같다. 응원단의 마지막 피날레 무대이자 내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무대는 ‘그대에게’이다. 99학년부터 20학년까지의 고문단원 선배님들이 세대를 아우르며 하

나의 무대를 만들어낸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응원단 선배 중에서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 본인 대학 시절의 응원단 추억을 공유하시는 분도 있었다. 이 또한 정말 멋있고 감회가 새로웠다. 여기에 한양대, 숙명여대, 인천대학교 응원단의 찬조 공연까지 더해져 1시간 20분가량의 응원대제전 무대가 꽉 채워졌다. 이번 무대는 평소 뛰던 행사와는 다르게 무대위에서 내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아는 얼굴들이 보여 더 떨렸던 것 같다. 눈 앞에서 직접 응원을 받으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며 힘이 나 재미있게 무대를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축제는 각 학과들의 부스와 다양한 장르의 무대, 이벤트, 학생들의 사진전에 역대급 연예인 공연까지 정말로 알찼던 것 같다. 기대만큼 너무나 재밌는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고 벌써 내년 축제가 기대가 되는 마음이다.



축제 마지막 날, 단장 등장곡인 'DARKNESS'에 맞춰 무대 위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천마 응원단

기자석 I

그저 일상을 산 것뿐이다



김수빈 기자

10월 29일 저녁,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다. 대부분의 이들은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그렇지 않은 이도 있었다. 나라를 위해 죽은 것도, 누구를 구하려다 죽은 것도 아닌데 뭐가 안타깝냐는 것이다. 유흥과 음주·가무를 즐기다 죽었으니 그리 슬픈 일인지 모르겠다는 댓글이 추천 기사에 가득했다. 고인이 된 이들을 향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성 댓글도 있었다. 심지어 어느 한 아파트 단지는 열차 노선 반대를 위해 참사를 빚낸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다 비판을 받아 하루 만에 철수하기도 했다. 고인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사고 현장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이들에게, 참사 현장을 구조하기 위해 움직였던 이들에게 비난의 말과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왜 혼자만 살아남았냐’, ‘왜 CPR을 하는데 속옷이나 옷을 벗기느냐, 신체 부위를 만지기 위함이 아니냐’ 등의 다소 황당한 댓글들이 달린 것이다. 당연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고, 정확한 CPR의 효과를 위해선 속옷과 옷 등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해 행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참사로 고인이 된 이들, 살아남은 이들, 구조자들이 과연 정당한 비판의 대상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저 그들은 일상을 산 것뿐이다.

누군가는 일상을 산 것뿐이라는 말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 자신들의 선택으로 놀러 간 것이고, 누가 거기서 놀라고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나

고 말이다. 사람이 밀려다닐 정도로 많아 보이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다. 그러나 매일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만 떠올려봐도, 우린 이미 엄청난 인파 속에 밀려다니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휴가철 유평크, 연말 놀이동산, 콘서트장의 스탠딩존 등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이 끼여있는 위험한 일상에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말이다. 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참사를 당한 것뿐이다.

그 때문에 일상을 살다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이유로, 참사 현장에서 홀로 살아났다는 이유로, 그들을 성심성의껏 도왔다는 이유로 악성 댓글이 달릴 명분은 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애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애도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마다 참사에 관해 관점이 다르고 추모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단지 그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게 비판과 비난의 말들은 넣어두는 것이 어떨까.

기자석 II

베일에 싸인 ‘자유’



기민정 기자

“여성, 생명, 자유.” 현재, 어쩌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란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을지 모르는 구호다. 이 올림픽이 퍼지기 시작한, 때는 9월 13일. 이슬람권 국가인 이란에서 하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흐사 아미니’라는 한 여성이 체포되었가 돌연 의문사를 당한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녀의 나이, 고작 22살이었다.

해당 사건은 이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고, 마침내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들였다. ‘하잡 반대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거리로 나가 자유를 외쳤고, 그들의 외침과 함께 시위의 규모는 점차 커져갔다. 위기의식을 느낀 이란 당국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유혈 진압까지 강행하기에 이르고, 결국 현재까지 약 300여 명 가량이 숨지는 참담한 실체를,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아랍어로 ‘가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하잡은 이슬람 경전 ‘코란’에 따라 무슬림(이슬람 교도)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두건이다.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종교가 정한 ‘여성 보호’라는 명목 아래 무슬림 여성들은 외출 시 꼭 하잡 착용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보호’는 현재 여성

들에 대한 억압과 속박으로써 인권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하잡 착용 및 그와 관련된 문제는 자유의 상징이라고 하는 스포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2022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이란의 ‘엘나즈 레카비’라는 여성 선수가 하잡을 쓰지 않고 경기에 출전해 이목을 끌었다. 당시 이란 내에서는 ‘하잡 반대 시위’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단연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회 마지막 날, 레카비와의 연락이 갑자기 두절됐다는 외신 보도에 따라 ‘실종설’이 대두됐다. 하잡 미착용에 따른 이란 당국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그러나 논란이 무색하게 이란 국제공항에 모습을 보인 레카비의 해명과 함께 해당 의혹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영국 공영 방송 BBC는 레카비가 이란으로 돌아간 뒤 감시를 받으며 구금됐고, 현재는 가택연금 상태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레카비가 하잡 미착용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한 것 역시 당국의 협박에 의한 행동이라며 소식통을 인용해 알렸다. 여전히 레카비의 신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차라리 정말 외신의 오보에 따른 단순 해프닝이길 바란다. 또 다른 ‘아미니’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처럼 스포츠에서의 하잡 미착용에 대한 문제는 비단 레카비의 경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9년 이란의 여성 권투선수 ‘샤다프 카렘’은 하잡을 쓰지 않고 반바지 차림으로

국제경기에 출전했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반했고, 결국 경기 후 프랑스에 남기로 결정한다. 또 이란 여성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태권도 선수 ‘키미아 알리자데’는 SNS를 통해 ‘국가가 자신의 메달을 하잡에 덮어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당국을 비판하며, 그렇게 메달을 이용하면서도 ‘다리를 그렇게 쪽쪽 뺐는 것은 여자의 덕목이 아니다’라고 모욕당했다는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렇게 그녀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독일로 이주해 난민팀 소속으로 출전하기에 이른다.

하잡을 쓰지 않았다는 종교적인 이유와 그에 따른 억압으로 타국 국기를 달면서까지 선수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이란, 그리고 또 다른 무슬림 여성들. 종교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선택이 아닌 강요가 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따른 억압적인 여성의 삶은 문화라는 이름하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그러나 현 상황에 이르러서는 이슬람 율법이라는, 문화가 정한 체계로 인간의 자유를 넘어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찾아오는 일이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과연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 인권 위에 종교가 서있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하잡을 벗은 그 순간, 인권의 부재라는 실상은 드러난다. 이에 오늘날도 자유를 외치며 그들은 하잡을 벗어던지고 목숨을 건 거리의 행진을 한다. 그들의安危와 함께 다가올 베일에 싸인 자유의 해방을 바란다.

한국체육대학보

http://news.knsu.ac.kr

발행인 | 안용규 주 간 | 허진석 기 획 | 김세준 편집장 | 장재민

기 자 | 이종원 · 김규태 · 한지용 · 기민정 · 김수빈 · 방지혜 · 송유나 · 박소영 · 권규태 · 박서진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필승관 B106호

전 화 | (02) 410-6556